2023-11-06 (2023-40호)
11월 06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낮아진 환율 하단... 美 금리 하락 · 약달러 지속 여부 주목

서울, 11월06일 (로이터)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미국 국채 금리 하락 및 글로벌 달러 약세 지속 여부를 살피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달러/원 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11월 정책회의를 소화하며 30원 넘게 급락했다. 연준의 금융여건 긴축 언급에 시장은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위험선호 심리가 되살아났고 여기에 역외 매도와 추격 매물까지 가세하면서 환율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

최근 거래 레인지 하단으로 여겨졌던 1,340원을 단숨에 하향 돌파한 달러/원 환율은 이번 주에도 무거운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난주 후반 발표된 미국 고용 보고서는 노동시장 둔화를 시사하며 긴축 종료 분위기에 더욱 힘을 실었다. 미국의 10월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는 15만명으로 전망(18만명)을 밑돌았고, 실업률은 3.9%로 전망(3.8%)을 상회했다.

미국 국채 금리 하락, 달러 약세에 기댄 증시 랠리가 연장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달러/원 환율은 주초반부터 추가 하락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짧은 기간 내에 큰 폭 밀린 만큼 저가 매수세와 포지션 언와인딩이 나타날 수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과 예산안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 갈등 추이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다시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주에는 다수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예정돼 있다. 연준이 긴축적인 금융여건이 추가 긴축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가운데 특히 11월 FOMC 회의 이후 미국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한 것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할지 주목해야 할 듯하다.

7일에는 중국 수출입 지표가 발표된다. 핵심 경제지표에 앞서 주중 중화권 증시와 위안 움직임에 따른 변동성은 여전히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요 이벤트로는 6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로렌스 서머스 교수의 화상 대담이 있다. 8일에는 국내 펀더멘털을 확인할 수 있는 9월 국제수지가 발표되며, 9일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하반기 경제 전망이 나온다.

(문윤아 기자; 편집 임승규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국내외 일정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11월06일(월)

⊙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로렌스 서머스 교수 화상 대담 (09:10)

11월7일(화)

⊙ 금융감독원: 2023년 10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06:00)
⊙ 기획재정부: 부총리ㆍ1차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10:00)
⊙ 기획재정부: 외환건전성협의회 개최 (11:00)
⊙ KDI: KDI 경제동향(2023. 11) (12:00)
⊙ 한국은행: 2023년 제19차(10.19일 개최, 통방) 금통위 의사록 공개

11월8일(수)

⊙ 기획재정부: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07:30)
⊙ 한국은행: 2023년 9월 국제수지(잠정) (08:00)
⊙ 한국은행: 원/달러 외환시장 구조개선 : 은행간시장 관행 · 인프라 개선 방안 (11:00)
⊙ 한국은행: 2023년 10월중 금융시장 동향 (12:00)
⊙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2023년 10월중 가계대출 동향 (12:00)
⊙ KDI: KDI 현안분석 중국 건설업 위축의 영향과 중장기 무역구조 변화의 시사점 (12:00)

11월9일(목)

⊙ 기획재정부: 글로벌최저한세 관련「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09:00)
⊙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11월호) 발간 (10:00)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비통방, 10:00)
⊙ KDI: KDI 경제전망(2023. 하반기) (12:00)
⊙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BIS 총재회의」및「FSB 총회」참석 (12:00)

11월10일(금)

⊙ 기획재정부:「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 의결 (11:00)
⊙ 한국은행: 2023년 10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12: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11월06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11월6일	18:30	유로존	센틱스지수	11월	-22.2	-21.9
11월7일	00:00	미국	고용추이	10월		114.66
11월7일	08:30	일본	가계지출 YY	9월	-2.7%	-2.5%
11월7일		중국	수출 YY	10월	-3.1%	-6.2%
11월7일		중국	수입 YY	10월	-5.4%	-6.2%
11월7일	19:00	유로존	생산자물가 YY	9월	-12.5%	-11.5%
11월7일		중국	외환보유고	10월	3.100T	3.115T
11월8일	05:00	미국	소비자신용	9월	10.00B	-15.63B
11월8일	08:00	일본	로이터 단칸 제조업지수	11월		4
11월8일	08:50	일본	외환보유고	10월		1,237.2B
11월8일	14:00	일본	경기동행지수	9월		0.1
11월8일	14:00	일본	경기선행지수	9월		1.0
11월8일	19:00	유로존	소매판매 MM	9월	-0.2%	-1.2%
11월8일	21: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10월30일주간		161.8
11월9일	08:50	일본	은행대출 YY	10월		2.9%
11월9일	08:50	일본	경상수지 NSA JPY	9월	3,000.8B	2,279.7B
11월9일	10:30	중국	PPI YY	10월		-2.5%
11월9일	10:30	중국	CPI YY	10월		0.0%
11월9일	22: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0월30일주간	215k	217k
11월10-17일		중국	총통화(M2) 공급 증가율 YY	10월		10.3%
11월10-17일		중국	신규 위안화 대출	10월		2,310.0B
11월10-17일		중국	FDI (YTD)	10월		-8.40%
11월11일	00: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11월	64.0	63.8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11월6일 (월)
⊙ 일본은행 9월21-22일 회의 의사록 공개 (오전 8시50분)
⊙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 듀크대 주최 행사서 연설 (7일 오전 1시)

11월7일 (화)
⊙ 호주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결과 (오후 12시30분)
⊙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제 7차 연례 핀테크 위크 행사 토론 주재 (오후 11시15분)
⊙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 캔자스시티 연방은행ㆍ댈러스 연방은행 공동 주최 컨퍼런스 환영사 (오후 11시50분)
⊙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컨퍼런스서 연설 (8일 오전 0시)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뉴욕경제클럽 주최 토론 주재 (8일 오전 2시)
⊙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 캔자스시티 연방은행ㆍ댈러스 연방은행 공동 주최 컨퍼런스 오찬 기조연설 (8일 오전 3시30분)

11월8일 (수)
⊙ 리사 쿡 연준 이사, 아일랜드 중앙은행 2023년 금융시스템 컨퍼런스 토론 참석 (오후 7시15분)
⊙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준 리서치통계국 컨퍼런스 개회사 (오후 11시15분)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주최 행사 기조연설 (9일 오전 3시40분)
⊙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NAAHL 연례 컨퍼런스 토론 참석 (9일 오전 4시)
⊙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 연준 리서치통계국 컨퍼런스 폐회사 (9일 오전 6시45분)

11월9일 (목)
⊙ 일본은행(BOJ) 10월30-31일 정책회의 주요 의견 요약 (오전 9시50분)
⊙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 파이낸셜타임스(FT) 주최 인터뷰 참석 (오후 5시35분)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애틀랜타 연방은행 뉴올리언즈 지사 주최 컨퍼런스 대담 참석 (오후 11시30분)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마켓뉴스인터내셔널 웨비나 토론 참석 (10일 오전 1시)
⊙ 케이틀린 오닐 페이즈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임시 총재, 미국 경제 및 통화정책 관련 연설 (10일 오전 2시)
⊙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제 24회 자크 폴락 연례 리서치 컨퍼런스 정책 패널토론 참석 (10일 오전 4시)

11월10일 (금)
⊙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 2023 유럽중앙은행(ECB) 머니마켓 컨퍼런스서 연설 (오후 9시30분)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2023 FT 글로벌보드룸서 마틴 울프 FT 수석 칼럼니스트와 대담 (오후 9시30분)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모바일상공회의소 행사에서 연설 (오후 11시)

11월11일 (토)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2023년 추계 공공정책분석관리협회 컨퍼런스 토론 주재 (12일 오전 5시30분)

11월12일 (일)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13일까지)

▶ 주간 세계 5대 이슈

⊙ 중앙은행들 금리 전망
투자자들은 이제 연방준비제도,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 등 주요 중앙은행들이 언제 금리를 인하할지 궁금해하고 있다.

유로존 인플레이션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경제가 정체 또는 침체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ECB의 경우 내년 4월부터, 영란은행은 내년 8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실해 보이지만 최근 제조업 지표의 급격한 위축을 보면 미국 경제에도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났을 가능성을 70% 정도로 높게 반영하고 이르면 내년 6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시장은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진정될 때까지 금리 인하에 반대할지, 아니면 서서히 인하 가능성을 언급할지 주목하고 있다.

⊙ 엔 변동성
연준이 금리 인상을 끝냈다는 견해가 강화되면서 달러/엔이 150엔 아래로 내려왔지만 일본 당국의 환시 개입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 1일 간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은 일본 당국이 최근 엔화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 중이라고 말하면서 투기세력에 대한 경고를 강화했다.

지속적인 엔화 약세로 수입 물가와 가계 생활비가 증가하자 최근 몇 달간 시장은 일본 당국의 엔화 매수 개입 가능성을 경계해왔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에 대한 지지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도 엔화 약세를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다.

⊙ 주요 기업 실적
지난주 미국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주요 주가지수 상승에 기여한 가운데 현재 애널리스트들은 S&P500 기업들의 3분기 이익이 전년비 5.7%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81%가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았다.

이번 주에는 7일에 이베이와 D.R.호튼, 8일에 월트디즈니와 바이오젠의 분기 실적이 발표되며, 이달 말에는 올해 AI 열풍의 주인공인 엔비디아의 실적도 공개된다.

유럽에서는 7일 UBS, 8일 코메르츠방크와 ABN암로, 9일 철강 대기업 아르셀로미탈, 10일에는 보험사 알리안츠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 중동 분쟁 지속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지속되는 분쟁도 여전히 시장의 관심사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쪽의 가자시티로 진격했지만 지하 터널을 이용한 하마스의 강한 반격에 직면해 있다. 가자 보건 당국은 현재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가 9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금융 시장은 주의깊게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안전자산인 금은 이번 사태가 발발한 이후 10% 가까이 급등했지만, 이란이 이번 분쟁에 관여할 수 있다는 우려로 촉발된 초반의 유가 급등세는 완전히 진정된 상황이다.

하지만 상황은 다시 급변할 수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3일 다시 이스라엘을 방문해 인도주의적 교전 중단을 제안했으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인질 석방 전까지 휴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RBA 금리 인상 전망
호주 중앙은행(RBA)이 오는 7일 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 참여한 이코노미스트 39명 중 34명은 3분기 호주의 강한 인플레이션 영향에 RBA가 7일 금리를 2011년 11월 이후 최고인 4.35%로 25bp 인상하리라 예상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RBA의 첫 금리 인하 시기는 내년 3분기로 전망됐다. 지난달 조사에서는 내년 2분기로 예상됐었다.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단독) - 5대 시중은행, 대규모 신디케이트 론 통한 폴란드 무기 수출 금융지원 준비

서울, 11월3일 (로이터) 임승규 김주연 기자 -
국내 5대 시중은행이 대규모 신디케이트 론(syndicated loan, 다수의 은행으로 구성된 차관단이 공통의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차입자에게 융자해 주는 중장기 대출) 조성을 통해 국내 방산업계의 최대 현안인 폴란드 2차 수출이행계약에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등은 총 100억 달러에 달하는 신디케이트 론을 조성해 폴란드 정부와 3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폴란드 2차 수출이행계약을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5대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폴란드 정부와의 2차 무기 계약에 신디케이트 론을 통한 지원을 하겠다고 제안해 왔다"고 말했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지난해 7월 폴란드 정부와 무기 수출을 위한 기본 계약을 맺은 후 구체적인 물량과 도입 시기는 이행계약(본계약)을 통해 추후 정하기로 했다.

1차 수출이행계약은 지난해 8월 이뤄졌는데 K2 전차 180대(약 4조5000억원), K9 자주포 212문(약 3조2000억원), FA-50 48대(약 4조2000억원), 다연장로켓 천무(약 5조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 간 거래로 이뤄지는 사업의 특성과 막대한 거래 규모 탓에 방산계약 때 무기 판매국은 구매국에 저리 대출과 장기 분할상환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게 일반적이다. 1차 계약 당시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이같은 금융 지원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3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2차 이행계약 협상을 앞두고 금융 지원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특정 대출자에 대한 신용 제공 한도가 자기 자본의 40%로 제한돼 있는 수출입은행은 1차 계약 당시 이미 수출금융을 한도에 가깝게 사용해 추가 지원이 어려워졌다. 여야가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30조~35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법안의 신속한 개정 여부가 불투명하다 보니 당장 폴란드 정부와 2차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방산업체들 입장에선 더 즉각적인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중은행들이 신디케이트 론을 조성해 2차 계약에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신디케이트 론 규모는 100억 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은행권에서도 자금조달 경로 등 대출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내부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폴란드 2차 계약을 위한 자금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방산업계에선 폴란드 무기 수출 계약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시중은행의 금융지원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폴란드와의 2차 무기수출 계약 일부가 국내은행들의 신디케이트 론 금융지원을 받

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라며 "다만 이것만으로는 총 계약 규모를 다 채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다른 금융지원 방식도 찾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 문윤아 기자)
((seunggyu.lim@thomsonreuters.com ; +822 6936 1466;))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단독) - BOJ, 도비시한 발언 유지하며 출구전략 천천히 추진할 듯 - 소식통들

도쿄, 11월3일 (로이터) -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는 내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에서 벗어날 계획이지만 중동 분쟁과 미국 경제의 연착륙 여부 등 글로벌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그의 출구 전략 이행에는 약간의 행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BOJ와 직접 접촉하는 정부 관리 등 BOJ의 생각을 잘 아는 소식통들이 로이터에 밝혔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우에다 총재는 도비시한 발언들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출구전략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우에다 총재는 지난 4월 취임한 이후 물가 목표치인 2%를 지속적으로 달성할 때까지 초완화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전임 총재의 약속을 대부분 되풀이해왔다.

우에다 총재는 작은 힌트에도 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연착륙을 위한 BOJ의 계획이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좁은 출구 경로를 염두에 둘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현재 BOJ의 주요 메시지는 실제 하고 있는 것과는 상충되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초완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BOJ는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해 적어도 내년 봄까지 기다리기를 원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BOJ의 가이던스를 비둘기파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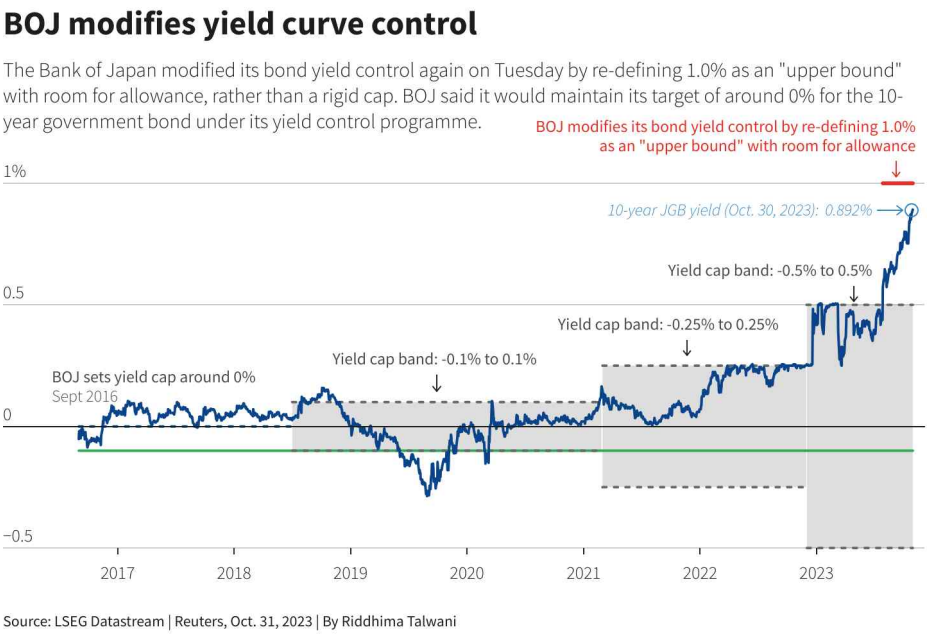
◆ 엔화 리스크

초저금리의 부작용인 엔화 약세가 BOJ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엔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면 BOJ가 원하는 것보다 더 빨리 출구전략을 이행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소식통들은 우에다 총재는 엔화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출구전략을 신중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우에다 총재는 시장의 흐름을 아예 외면하지는 않았다.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을 조정하여 10년물 수익률 상한선을 7월에 0.5%에서 1%로 올렸으며, 지난달 31일에는 1%를 엄격한 상한선이 아닌 변동 허용폭의 '상단'으로 재정의하며 장기 금리 통제를 더 완화했다.

소식통들은 BOJ의 다음 초점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고 단기 금리 목표치를 현재 -0.1%에서 0%로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 출구전략의 장애물

BOJ가 출구전략을 철회할 조짐을 보이면 채권 투매가 일어나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입히고 일본의 막대한 공공 부채를 상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한 소식통은 "출구전략을 시행하기 전에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조기 출구전략 시행 가능성에 대해 시장을 너무 흥분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 금리 급등에 따른 비용이 너무 높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출구 시나리오는 BOJ가 YCC와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하되 채권 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완화적 약속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국내 전문가 의견) - “9월 FOMC와 달랐다”... 금리 인상 사실상 종료 무게

서울, 11월2일 (로이터) -
국내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11월 정책회의에서 특히 긴축적인 금융 여건이 언급된 점에 주목하며 향후 추가 금리 인상보다는 동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했다.

연준은 1일(현지시간)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5.25-5.50%로 유지하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뒀다.

그러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융 여건 긴축을 "경제 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했고, 과소 긴축 리스크와 과잉 긴축 리스크가 점차 균형을 향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발언을 통해 높은 장기 금리, 달러 강세 등의 금융 여건이 통화정책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앞으로 금융 환경 긴축이 지표 둔화로 이어지는 여부가 시장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 공동락,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

"연준은 높아진 시장금리로 인해 금융 여건이 긴축적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성명서에 표시했고, 파월 의장의 회견을 통해서도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최근 가파르게 이뤄진 시중금리 상승으로 나타난 상황 변화에 만족을 표하는 동시에 금융시장 전반에 더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사 표시로 보인다. 이에 당사는 11월 FOMC를 통해 금융시장이 그간 연준이 금리 정책에 대한 기조로 밝힌 ‘higher for longer’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실체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 전규연, 하나증권 이코노미스트

"11월 FOMC 회의는 시장금리 상승이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지 여부가 중요했는데, 성명서와 기자회견에서 높은 장기금리나 강달러, 주가 하락 등의 금융 여건이 통화정책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이 확인돼 추가 금리 인상 확률을 낮췄다. 연준이 경기와 금융 여건을 함께 고려하기 시작한 만큼 금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동결될 것으로 전망한다. 가계와 기업의 금리 부담이 서서히 높아져 물가가 안정된다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도 약화될 것이다."

▲ 박상현、류진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

"9월 FOMC 회의 당시 강한 매파적 발언 등으로 긴축발작을 유도했던 파월의장이 11월 FOMC 회의 기자회견에서는 예상보다 완화적 발언으로 시장을 충분히 달래 주었다고 평가된다. 파월 의장의 기자 회견 내용 중에 주목되는 부분은 시차는 있겠지만 물가 2% 달성 가능성을 이전보다는 높게 평가, 고용시장 여전히 타이트하지만 노동공급이 개선되면서 임금상승률 둔화 여력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 중립금리 수준의 추가 상향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 금리인상 사이클이 과잉 긴축도 과소 긴축도 아닌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경제활동 주체들의 금리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한 것은 분명히 이전 9월 기자회견과는 대비되는 부문이다. 동시에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침체 리스크보다 연착륙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것도 눈에 띄었다."

▲ 이승훈, 메리츠증권 이코노미스트

"시장이 우려했던 매파적 중단 시나리오에 비해서는 도비시했다. 기자회견은 인플레이션 안정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추가 인상보다는 향후 동결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신중한 행보 강조, 9월 FOMC 점도표 유효성 퇴색, 긴축과잉/과소 사이 리스크 균형 언급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당사 기본 견해인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인상 없이 동결, 하반기 인하 전망 유지한다. 연준 톤 변화는 미국 국채금리 추가 상승보다는 하향 안정화 지지 요인이다."

▲ 김유미,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

"성명서는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강화하고, 금융여건 긴축에 대한 언급을 추가하며 일부 변화를 주는 정도에 그쳤다. 기자회견은 2% 물가목표치 달성까지는 충분히 제한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과 기준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임을 재확인했는데, 예상 수준의 발언으로 금융시장은 비둘기적으로 평가했다. 연준 금리 인상은 마무리되었다고 보며, 높아진 시장금리를 바탕으로 통화정책의 효과를 지켜볼 전망이다. 소비 수요 약화 및 근원 물가의 점진적인 둔화 전망을 고려할 때 금리 동결 지속, 자금시장 내 유동성 경색이 심화되기 전까지는 금리 동결에 무게를 둔다. 달러는 연준 긴축 마무리로 추가 강세가 제한되며 좁은 레인지에서 당분간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강승원、박윤정, NH투자증권 연구원

"그간 '과소 긴축의 리스크가 과잉 긴축의 리스크보다 크다'고 평가한 데 반해 금번 기자회견에서는 '과소 긴축 리스크와 과잉 긴축 리스크가 점차 균형을 향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성명서에서는 '더 긴축된 금융 환경' 문구가 새롭게 추가됐고 기자회견에서 파월 역시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최근 금융 환경 긴축이 실제 긴축 효과가 있음을 인정했다.12월 FOMC에서도 연준은 추가 인상 내러티브를 포기하지 않겠지만 당사는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전망을 유지한다. 지금부터는 뒤늦은 금융 환경 긴축이 뒤늦은 지표 둔화로 이어지는 지 여부가 중요한 국면이다. 시장의 핵심 재료는 연준의 긴축 의지에서 펀더멘털로 전환된다."

▲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9월에 비해 연준의 발언은 신중해졌다. 그렇다고 해서 완화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준은 아니나, 적어도 현재 상황이라면 추가 인상가능성은 거의 배제할 수 있는 선택지라는 확신을 줄 정도는 가능하다. 12월 FOMC 회의와 점도표에 대한 불안감이 채권시장 일부에 상존했다면, 그 부분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많이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문윤아 기자; 편집 박예나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해외전문가반응) - 연준, 예상대로 금리 동결... 전문가들 “이전만큼 매파적이지 않아”**

11월02일 (로이터) -
연방준비제도가 1일(현지시간)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정책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3분기에 경제 활동이 강한 속도로 확장됐다"고 밝혔으며, 기업과 가계가 직면한 금융 여건이 긴축됐다고도 평가했다.

다음은 이에 대한 해외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 휘트니 왓슨, 골드만삭스자산운용 글로벌 헤드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를 상회하고 있지만 장기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 여건 긴축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완화하면서 연준이 현 통화정책을 유지했다."

◆ 데이비드 도일, 맥쿼리 경제팀장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고 성명서에도 아주 작은 변화만 있었다. 금리가 계속 동결될 것이나 최근 성장에 대한 평가가 상향돼 추가 인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 지나 볼빈, 볼빈웰스매니지먼트 사장

"연준이 금융 여건이 긴축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금리 인상 주기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

◆ 마빈 로, 스테이트스트리트 선임 전략가

"장기 금리 상승으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해졌다는 견해가 힘을 얻었다. 정책 성명에서 매파적 메시지가 부족한 것을 시장은 도비시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 피터 카르딜로, 스파르탄캐피털증권 수석 시장 이코노미스트

"이번 성명은 도비시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금리를 두 번 연속 동결했다는 사실은 연준이 12월에도 금리를 동결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연준의 금리 인상 주기는 끝났다는 뜻이다."

◆ 마이클 제임스, 웨드부시증권 주식 트레이딩 총괄

"오늘 주식시장 상승은 파월 의장이 고금리 장기화에 대해 이전 기자회견에서만큼 적극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 찰리 리플리, 알리안츠투자운용 선임 투자 전략가

"연준이 다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들은 추가 금리 인상을 위한 기준이 더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종합)(해외전문가반응) - BOJ, YCC 정책 수정... 장기 금리 상한 재정의

10월31일 (로이터) -
일본은행(BOJ)이 31일 10년물 국채 수익률 1.0%를 엄격한 상한선이 아닌 변동 허용폭의 "상단"으로 재정의함으로써 수익률 곡선 통제(YCC) 정책을 다시 한번 수정했다.

BOJ는 성명에서 "BOJ는 국채 10년물 수익률 상한 1.0%를 참고치로 간주할 것"이며 대규모 채권 매입과 민첩한 시장 오퍼레이션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에 대한 해외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 롭 카넬, ING 아시아태평양 리서치 헤드

"약간 이상하다. 그리고 시장이 정확히 반응했는지 모르겠다. 이제 1%가 참고 금리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유연성이 있는 것처럼 들린다. 10년물 국채 수익률 1%의 가장자리를 흐릿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시장 반응이) 더 큰 조정을 반영했었기 때문인지 잘 모르겠다."

◆ 제프 응, SMBC 아시아 거시전략 헤드

"BOJ가 YCC 종료로 서서히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정은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이다."

"시장이 더 큰 걸 기대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상황일 수도 있다."

◆ 톰 내쉬, UBS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매니저

"BOJ는 1% 부근에 채권을 매입할 것이나 무제한은 아니며, 그들은 자신의 패를 보여줬다. 그들이 YCC를 해체하고 있다는게 팩트다."

"수익률 상한을 시장이 접근할 때마다 바꾼다면 그건 상한이 아니다."

◆ 오모리 쇼키, 미즈호증권 일본 데스크 수석 전략가

"(높은 미국 금리 전망과) 높은 인플레이션 전망에 비추어 볼 때 BOJ는 투기 활동을 유발해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응하여 미세 조정을 시도할 필요가 있었다."

"그들은 1.5%와 같은 목표치를 설정하면 투기적 투자자들이 BOJ에 계속 도전하게 만들기에 이런 목표치를 설정하고 싶지 않았다."

◆ 카일 로다, 캐피탈닷컴 선임 금융시장 애널리스트

"BOJ가 "부드럽게" 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 정책이 실제로 변경되리라던 추측을 감안하면 이처럼 점진적 방법은 어쩌면 시장에 서프라이즈일 수도 있다. 정책 변경 가능성이 아직 있는 것으로 보이나 오늘이 아닐 뿐이다."

◆ 맷 심슨, 씨티인덱스 선임 시장 애널리스트

"달러/엔이 랠리를 보였다는 것은 시장이 YCC 종료에 베팅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수익률이 BOJ 발표 전 1%를 향하고 있었다는걸 감안하면 그럴 만도 하다. 하지만 BOJ가 달러/엔의 랠리를 제한하기 위해 개입 버튼에 손을 대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

◆ 차루 차나나, 색소 시장 전략가

"(새 참고 레인지는) BOJ가 수익률이 1% 위로 상승하는걸 허용하는 한편 정책 변경을 아주 약하게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YCC 종료에 대한 추측은 계속 커질 것이다."

◆ 마츠자와 나카, 노무라 수석 거시 전략가

"가능한 한 도비시한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했고, 금리 인상과 같은 추가 정책 변화에 전념하지 않았다. 인플레이션 전망을 높이긴 했지만..2%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 유지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정상화를 향한 전환이기에 실망스럽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외환시장은 일본과 미국의 금리 균형이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 토니 시카모어, 씨티인덱스 애널리스트

"오늘 결정은 BOJ에 더 많은 유연성을 줄 것이며, 설정된 상한선을 방어하기 위해 대차대조표를 확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명한 변화이며, 내년 추가 정책 정상화를 앞두고 BOJ에게 시간을 벌어준다."

◆ 미야지마 다카유키, 소니파이낸셜그룹 선임 이코노미스트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보다 더 도비시한 결정이었다. BOJ가 일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1%를 넘도록 허용하더라도, 너무 빨리 상승하며 모든 조치를 취해 수익률을 억제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코어-코어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2024년 2%를 밑도는 등 인플레이션 전망치 역시 보수적이다. 이는 BOJ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서 벗어날 때까지 여전히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신안나 · 문윤아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달러/원 월간 전망 ①) - 강달러 리스크에도 단단한 레인지 인식

서울, 11월1일 (로이터) 박예나 문윤아 기자 -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 추세, 중동 지정학적 우려 등 우호적인 강달러 여건에 달러/원도 영향받겠지만, 10월과 같은 레인지 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보다 힘이 실렸다.

로이터통신이 외환시장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1월 환율 예상 범위(평균)는 1,328.7-1,372.5원으로 제시됐다.

지난달 마지막 거래일 종가(1,350.5원)와 비교했을 때 저점은 21.8원 낮고, 고점은 22.0원 높아 달러/원 환율은 위·아래로 비슷한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됐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전망, 중동 지정학적 긴장, 견실한 미국 경제지표 등 현재 대외 여건이 강달러를 지지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 국채 장기물 금리는 재정 적자와 이스라엘 지원안 추진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 우려가 여전해 언제라도 강달러를 자극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중국 제조업 활동이 다시 수축세로 전환하는 등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일본은행(BOJ)의 정책 조정도 예상보다 약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위안 및 엔화 약세 흐름도 크게 개선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럼에도 중동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세가 제한되고, 국내뿐 아니라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의 당국 개입 경계감도 여전해 달러/원 환율이 일방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낮게 평가됐다. 수급적으로도 수출업체 등 역내 수급이 환율 상단을 막는 양상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 전문가별 코멘트

기관명	설문참가자	예상환율 범위	
신한은행	김장욱 부장	1,340	1,360
우리은행	박범석 과장	1,330	1,365
하나은행	고규연 팀장	1,330	1,370
DBG대구은행	이응주 차장	1,340	1,380
IBK기업은행	임기묵 차장	1,340	1,360
KDB산업은행	임준영 과장	1,330	1,380
NH농협은행	최종화 차장	1,320	1,390
키움증권	김유미 연구원	1,305	1,360
DB금융투자	문홍철 파트장	1,342	1,390
NH투자증권	권아민 연구원	1,310	1,370
평균		1,328.7	1,372.5

((Yena.Park@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달러/원 월간 전망 ②) - 강달러 리스크에도 단단한 레인지 인식

서울, 11월1일 (로이터) 박예나 문윤아 기자 -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 추세, 중동 지정학적 우려 등 우호적인 강달러 여건에 달러/원도 영향받겠지만, 10월과 같은 레인지 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보다 힘이 실렸다.

로이터통신이 외환시장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1월 환율 예상 범위(평균)는 1,328.7-1,372.5원으로 제시됐다.

다음은 전문가별 코멘트

▲ 김장욱 팀장 (신한은행)

"연준 금리 동결에도 고금리 장기화 전망, 중동 지정학적 긴장에도 유가 상승 통제, 조심스러운 중국 경기 반등에도 위안 약세 기조 유지, 약간의 일본 통화정책 조정에도 본질적인 정책 유지, 국내 펀더멘털의 가시적인 회복 부족 등 환율이 위, 아래 움직일 룸이 크지 않아 보인다."

- 예상 거래범위 1,340-1,360원

▲ 박범석 과장 (우리은행)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까지 도달하면서 강한 저항 레벨까지 와 있고 최근 연준 인사 발언이 안도감을 주면서 이번 FOMC도 지난번처럼 매파적 스탠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꾸준한 수주물량 등 네고 등이 상단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상반되는 ECB, BOJ의 통화정책과 지속되는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등에 달러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달 달러/원은 제한적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 예상 거래범위 1,330-1,365원

▲ 고규연 팀장(하나은행)

"여전히 높은 미국 국채금리와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달러의 탄탄한 움직임은 이어갈 전망이다. 다른 주요 중앙은행과의 정책 차별화 속 엔과 위안에 대한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하마스 사태로 인한 유가 우려도 여전한 가운데 주식시장에서 외인 순매도가 이어가는 점은 이달도 달러/원의 하방경직성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말로 접어들면서 역외 공격적인 포지션 구축이 자제되는 점, 연고점 부담, 대형 수출업체들의 대기 매물로 인해 환율 급등세 역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

- 예상 거래범위 1,330-1,370원

▲ 이응주 차장 (DGB대구은행)

"미국 물가와 경제 여건,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져 달러 보유 유인이 강하게 유지될 것으로 본다.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이제는 시장이 더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고금리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본다. 강달러 여건 속 원화 약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 예상 거래범위 1,340-1,380원

▲ 임기묵 차장(IBK기업은행)

"여러 악재에도 이에 대해 내성이 생기며 환율은 웬만하면 상승 탄력을 받지 않는 분위기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앞두고 고점 인식이 생기면서 달러지수 상승세도 더뎌졌다. 중국 우려에도 위안과 원화의 강한 상관관계는 다소 줄어진 듯하다. 지정학 리스크 등 추가 악재 없이는 레인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 예상 거래범위 1,340-1,360원

▲ 임준영 과장(KDB산업은행)

"연준은 11월에 시장 예상대로 금리 동결할 전망이지만 한차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열어둘 듯하다. 미국 경기가 여전히 강해 고금리 장기화 전망도 지속되며 강달러를 지지할 것으로 본다. 다만, 미국 경기 둔화는 상수로, 내년부터 국가별 경기 온도차 축소를 감안하면 연말에서 내년 초 사이 환율은 변곡점을 형성할 듯하다. 11월 환율의 제한적인 상승 시도를 전망하지만, 고금리 지속에 따른 부작용, 이-팔 전쟁 영향력이 특정 부문에서 확대될 경우 상방 변동성을 자극할 가능성을 열어둬야할 것으로 보인다."

- 예상 거래범위 1,330-1,380원

▲ 최종화 차장(NH농협은행)

"여전히 강한 미국 경제와 상당기간 지속될 연준의 긴축에 달러강세 전망은 이달에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확전 가능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5%에 달하는 미국 장기 국채금리의 영향으로 위험회피 성향이 지속되는 것도 원화의 부담요인이다. 10월 외국인 주식 순매도가 3.5조 상당이고, 11월 중순에는 삼성전자 분기배당도 예정돼 달러/원 하방 지지도 탄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연준의 스탠드가 다소 완화적이고 1360원 위에서는 개입 경계감과 수출업체 물량이 활발히 출회되고 있어 급격한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예상 거래범위 1,320-1,390원

▲ 김유미 연구원(키움증권)

"연준 통화 긴축 마무리에 따라 달러 강세가 주춤해지면서 달러/원 환율도 1300원 초중반에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 예상 거래범위 1,305-1,360원

▲ 문홍철 파트장(DB금융투자)

"미국 경제의 초월적인 고성장 환경이 이어지고 있고 고용도 긍정적 지표를 도출하고 있다. 이것이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오래 유지할 가능성을 높이고 달러 강세 및 환율 상승압력을 장기적으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다. 향후 펀더멘털 환경은 매우 유동적이지만 시장의 테마는 미국 장기채 금리의 급등에 모아져 있고 이는 곧 달러의 강세를 의미하므로 당분간 환율 상방압력이 꾸준히 유지되는 흐름이 만들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장기채는 수요공백, 부채급증, 고성장의 총체적 난국에 직

면해 있으므로 달러 역시 상방압력이 열려 있다는 판단이다."

- 예상 거래범위 1,342-1,390원

▲ 권아민 연구원(NH투자증권)

"2024년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축소,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11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유력하나 미국의 경기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만큼 달러 지수는 강보합을 예상한다. 대외발 불확실성이 끌고 펀더멘털이 뒷받침하고 있는 달러 강세 양상이다. 4분기 한국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 무역수지 흑자 전환 등 경상수급 호전에도 불구하고 대외발 불확실성은 원화 약세에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이다. 엔화, 원화 등 미국 외 통화의 경우 당국 개입 경계, 기술적 부담 상존하는 만큼 추가 약세폭이 크지는 않겠지만 뚜렷한 방향성 전환은 어려워 보인다."

- 예상 거래범위 1,310-1,370원

((Yena.Park.thomsonreuters.com; 82-2-3704-5671;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 @reuters.net))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